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속보: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을 위한 예비 합의를 두고 양측에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온 뒤, 트럼프는 방금, 이에 대한 "최종 결정"을 내리는 중이라고 밝혔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캔자스 연은 총재 “연준, 물가 안정에 초점 맞춰야”
- CNBC: 연준 이사 Bowman ‘향후 금리 인상’에 오히려 경고
- Bloomberg: 미 수출 늘면서 상품 교역 적자 줄었다
- Bloomberg: 미국인 저축률, 2022년 이래 최저치
- TheEconomist: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성장시켰나?

[미국 금융]
- WSJ: 미국 기업 수익과 근로자 소득은 큰 차이

[이란 전쟁]
- Bloomberg: 미국과 이란 추가 휴전 합의…평화 합의 내용에 마지막 공방
- Bloomberg: 석유사 Chevron, “호르무즈에서 선박 여러척 공격받아”

[오일]
- WSJ: 오일가 2020년 이래 큰 폭 하락…20% 떨어져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’s Schmid Says Officials Must Stay Focused on Inflation
캔자스 연은 총재 “연준, 물가 안정에 초점 맞춰야”

-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인 Jeff Schmidsms는 연준 관리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
- 그는 이민 감소와 노령층의 은퇴 가속화로 구직자 수가 줄어들면서 미국 노동 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. 즉 연준의 목표가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. 그는 물가가 "지나치게 과열되었으며 너무 오랫동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"라고 강조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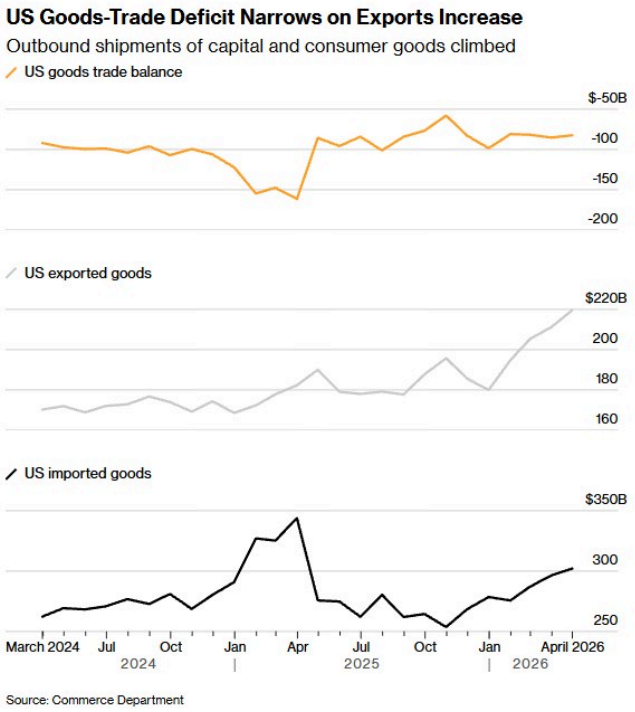
CNBC: Fed Governor Michelle Bowman warns against hiking interest rates because of inflation spike
연준 이사 Bowman ‘향후 금리 인상’에 오히려 경고

- 연준 이사인 Michelle Bowman은 오늘 금요일, 물가 급등을 해소하려는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 경고했다.
- 미 인플레가 연준 목표치인 2%를 크게 웃돌면서,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동결하고 2027년 초부터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. 현재 시장은 적어도 2027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.
- 그러나 Bowman 이사는 에너지 주도 인플레 급등을 상쇄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.

기사

Bloomberg: US Merchandise-Trade Deficit Narrows on Rise in Exports
미 수출 늘면서 상품 교역 적자 줄었다

- 미국의 4월 상품 무역적자가 줄었다. 자본재 및 소비재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. 전체적으로 상품 수출은 4% 상승했다.
- 산업용 제품과 자본재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상품 수출이 증가했다. 물론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. 수입 증가율은 1.9%에 머물렀다.
- 상품 무역 적자 규모는 3.4% 줄었는데 금액으로는 82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.



기사

YahooFinance: Americans' savings rate falls to lowest level since 2022
미국인 저축률, 2022년 이래 가장 낮다

- 미국 개인 저축률(가처분 소득 중에 저축 비율) 2022년 6월 이래 처음으로 3% 미만으로 줄었다. 그 당시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9.1%로 정점을 찍고 휘발유가 갤런당 5달러로 치솟았던 때였다.
- 최근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값이 갤런당 4.20달러를 넘어서는 등 에너지 지출이 늘면서 지난달 소비도 줄었다. 높은 에너지 비용은 인플레를 3.8%까지 끌어올렸고, 물가는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임금보다 빠르게 상승 중이다.

- 연준 Cook 이사는 이번주에 "인플레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"고 지적하면서도, 이 충격이 "아마 일시적이고 단기에 그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기사

TheEconomist: How much is Donald Trump costing America's economy?
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성장시켰나?

- 2025년 미국은 2.1%의 성장률을 보였다. 이와 같은 성장은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.
- 첫 번째, 인공지능의 성장. 4개의 AI 거대 기업들- 알파벳, 아마존, 메타 등의 자본 지출이다. 2025년,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는 GDP의 약 1% 포인트만큼의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.
- 두 번째 요인은 이에 따라 사이에 큰 미국 회사들의 S&P 500은 15%만큼이 성장했다. 이는 한 해에 가계 자산에 5조 달러가 더 증가했다.
- 세 번째 경제 성장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축소, 기업 인수 합병 완화 등 성장 촉진 정책이다.
- 그러나 관세 정책은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이익률을 줄임으로써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을 약 0.2%포인트 낮췄다고 예상된다. 추방 정책도 노동 공급을 줄였고, 소비 수요 역시 감소시켰다.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경제 성장률을 0.2%포인트 정도 둔화시켰을 수 있다.
- 사실, AI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, 정보 처리 기어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성장을 빼면 전체적인 경제의 모습은 그리 밝지 않다.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없었더라면, 미국은 연간 약 5%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을 수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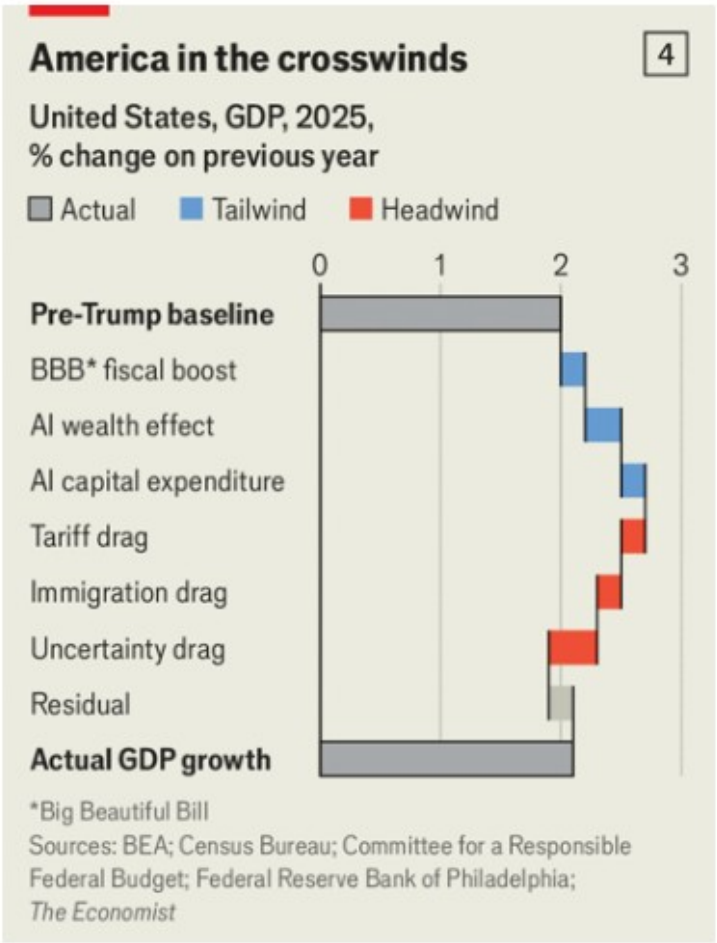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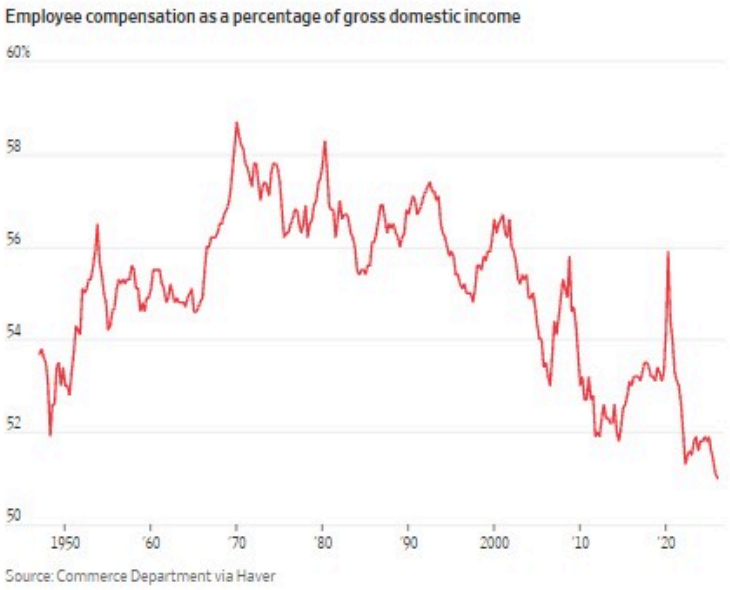
CHART: THE ECONOMIS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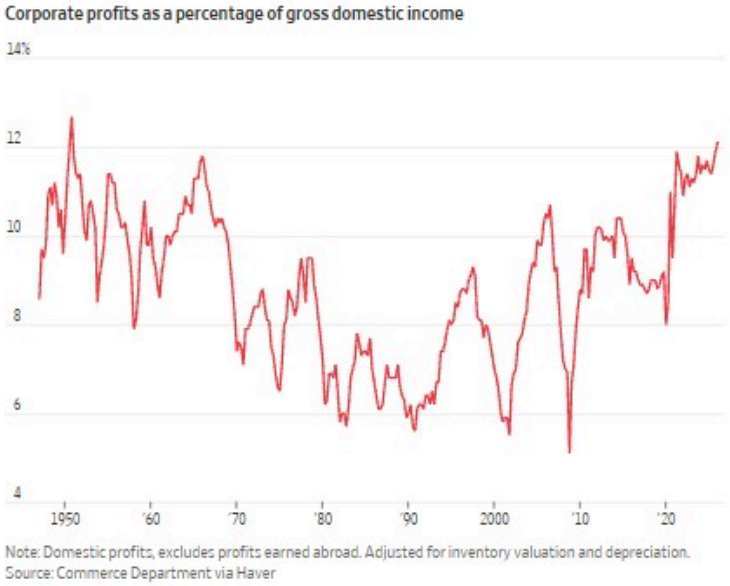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The Record Divide Between Corporate Profits and Worker Pay
미국 기업 수익과 근로자 소득은 큰 차이

- 미국인이 경제 상황에 힘들어 하는지 이해하려면 목요일 발표된 국내총생산(GDP) 보고서를 보면 된다. 특히 내용중에 국내 총생산 분배 내역이다.
- 올해 1분기 노동자 보상(임금 및 복지 혜택)은 전분기 대비 0.8% 소폭 증가한 반면, 국내 기업 이익은 2.7% 급증했다.
- 이에 따라 국내총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7년 집계 이래 최저치인 51%로 떨어졌다. 반면 기업 이익의 몫은 1950년 이후 최고치인 12.1%로 치솟았다.





기사

[이란 전쟁]

Bloomberg: US, Iran Reach Deal on Extended Ceasefire Pending Trump Approval
미국과 이란 추가 휴전 합의…평화 합의 내용에 마지막 공방

- 미국과 이란은 휴전을 60일 더 장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슈를 논의하기 임시 합의에 도달했다.
- 이번 합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며, 이란은 30일 이내에 해협 내 모든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미 디지털 온론 매체인 Axios가 보도했다.
- 트럼프는 아직 이 조건에 최종 동의하지 않았으며, 양국이 핵 관련 이슈를 포함해 "몇 가지 문구 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" 협상은 현재 진행중이다.

기사

Blooimberg: Ships Attacked in Strait of Hormuz This Week, Chevron CEO Says
석유사 Chevron, “호르무즈에서 선박 여러척 공격받아”

- Chevron 최고경영자 Mike Wirth에 따르면,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았다.
- 그는 선박들이 운항 중 공격받는 사건이 잇따랐으며, 이 중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일부는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.
- 앞으로 석유 수송이 재개되려면 선주와 보험사들이 항해 안전에 확신을 가져야 하며, 무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들 선주와 보험사가 해협으로 선박을 다시 보낼 용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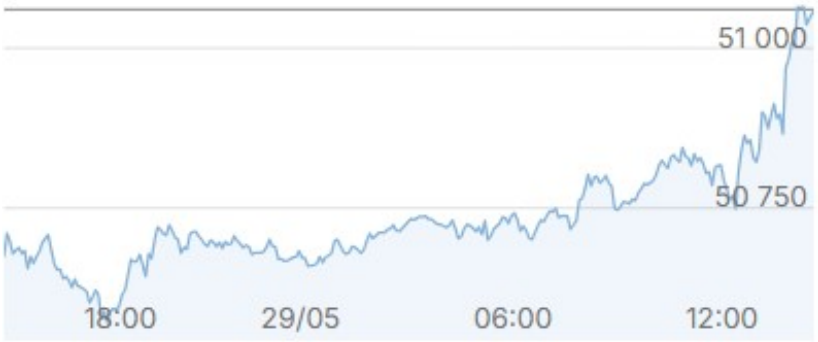
[오일]

WSJ: Oil Heads for Biggest Drop Since March 2020
오일가 2020년 이래 큰 폭 하락…20% 떨어져

- 국제유가가 오늘 약 2% 추가 하락하며 이번 달에만 약 19% 폭락해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할 전망이다.
- 현재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1.21달러에서 겨래중이다.
- 이번 폭락은 전쟁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%를 차지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합의 기대감 때문이다.
- 연방 재무장관은 어제 목요일 양국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으나, 트럼프의 최종 서명은 아직 남은 상태다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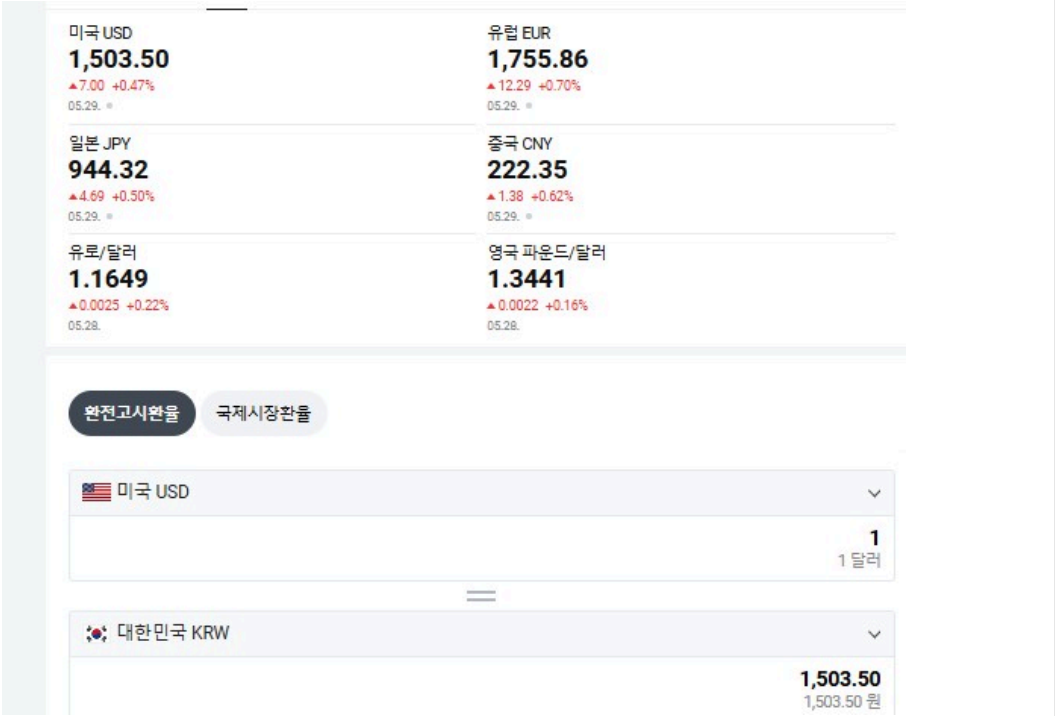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055.40	+385.6	+0.76%
US 500	7,588.30	+24.5	+0.32%
Dow Jones	51,058.29	+389.32	+0.77%
S&P 500	7,588.36	+24.73	+0.33%
Nasdaq	26,992.34	+74.87	+0.28%
S&P 500 VIX	15.35	-0.39	-2.48%
Dollar Index	98.75	-0.219	-0.22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1/32	4.981	0.007
10-Year Note	4.375	0/32	4.443	-0.005
7-Year Note	4.25	-14/32	4.283	-0.013
5-Year Note	4.125	1/32	4.142	-0.014
3-Year Note	3.875	1/32	4.044	-0.027
2-Year Note	4	0/32	4.006	-0.025
1-Year Bill	0	0/32	3.783	-0.001
6-Month Bill	0	0/32	3.748	-0.012
3-Month Bill	0	0/32	3.677	-0.001
1-Month Bill	0	0/32	3.676	0.002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